군종주보

2020년 2월 23일(제970호) 연중 제7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방법"

성경 공부 중 오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눔을 했을 때, 한 교우가 '무조건 참아주고 내어주는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절대 오늘날을 살아갈 수 없기에 말씀을 실천할 자신이 없다.'고 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우에게, 악을 선으로 응대하며 희생 공덕을 쌓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상 그렇게 말한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던가 손해를 볼 때 참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정을 가서 이 주제에 관한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프고 참고 마음속으로 무언가 쌓이더라도 꾹꾹 눌러 참고 상대에게 잘해주라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님을, 약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복음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 대어라'라는 말씀은 오른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려 종과 같은 취급으로 자신을 때리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을 대하라는 외침이었고, '겉옷마저 내주어라'라는 말씀은 옷을 내어주며 수치심 가운데에서도 당당해짐으로 오히려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요의 걸음에 더 많은 걸음을 걸어주라는 것과 꾸는 자를 마다하지 말라는 것 또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바라볼 때 권리를 남용하던 이들을 깨우치게 하는 수단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상대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한 마음으로 돌아서길 바라는, 사랑으로 악을 포용하는 법임을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내용 속 선한 이의 행동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것으로 비춰졌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세속의 방식이 아닌 하느님의 방식으로 인간을 선으로 이끄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진리인 양 말하지만, 어떤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을 동경하며 선을 행하는 이를 거울삼아 자신을 바꿀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이들이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아 아픔을 웃음으로 포장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선함으로 상대가 악에서 벗어나 잘못을 깨닫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호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최재관(암브로시오) 신부
진진(1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레위 19,1-2.17-18
화 답 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 서	1코린 3,16-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복 음	마태 5,38-48
영 성 체 송	주님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한국의 성인 복자 124위 장 토마스

성인명: 장 토마스 (張 Thomas)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815-1866년

경기도 수원 느지지(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서 태어난 장(張) 토마스는 1866년에 순교한 장주기 요셉 성인의 육촌 형제로, 그와 함께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고 입교하였다.

이후 그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도왔다. 그러다가 장주기 요셉 성인은 충청도 배론(현, 충북 제천시 봉양면 구학리)에 정착하였고, 장 토마스는 진천 배티(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정착하였다. 당시 배티에는 장 토마스의 인척으로 생각되는 장 시몬 회장이 거주하고 있었다. 장 토마스는 이때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다. 이 무렵 가까운 인척과 친구들은 그의 본심이 순량한 탓에 그에 대해 말할 때면 언제나 '착한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시작된 뒤, 장 토마스는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명령만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청주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와 가족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이내 진천 관아로 압송된 장 토마스는 관장 앞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관장이 "천주교를 배반하면 죽이지 않을 것이며, 너의 세간을 돌려주어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그는 "세간과 목숨은 버릴지언정 천주교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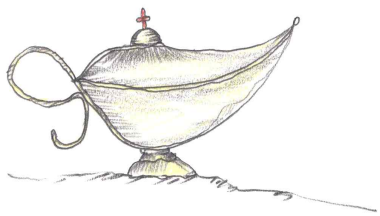
얼마 지나지 않아 장 토마스는 군대가 주둔하는 청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을 때 다시 영장이 "천주교를 배반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자, 여전히 "만 번 죽어도 천주교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한결같이 대답하였다.

이윽고 장 토마스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포졸들은 그를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將臺, 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로 끌고 나갔다. 바로 그때 장 토마스는 자기의 대자가 배교하려는 것을 목격하고는 "주님을 위하여 천주교를 봉행해 왔는데, 이런 기회를 버리고 목숨을 건진다면 장차 천주님의 벌을 어찌 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권면하였다. 그런 다음 칼날 아래 목을 드리우고 순교의 영광을 얻었으니, 당시 장 토마스의 나이는 51세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요술램프



요술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도.

모든 이가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늘에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님이시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성화이야기

오 하느님, 승리입니다!

오늘 성화는 출애굽기 17장 12절, 이스라엘과 아말렉군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군이 우세해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군이 우세해지는 것에 대한 성화이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후르가 모세의 팔을 지지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 그림은 석양처럼 보이는 붉은 하늘을 뒷배경으로 한 모세와, 기도 안에서 주의 깊게 전투를 바라보고 있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정신만은 형형한 세 인물의 진지한 표정이 잘 그려져 있다.

존 에버렛 밀레, 1870년 제작
캔버스 위 유화
194.7 × 141.3cm
맨체스터시 미술관, 영국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7주일: 비룡 인원철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2월 25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육군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26일(수) 18:00, 화랑대 성당

-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미사**

  때·곳: 2월 27일(목) 19:00, 국제평화지원단

◆ 군종교구 지원대 성당 사무장 모집

- 자격 : 컴퓨터 사용 가능자,
  운전면허 1종 보통 보유자
- 인원 : 1명
- 접수 : 2월 28일(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군종교구 홈페이지 (gunjong.or.kr) 참조